



미 양 중 학 교

2021년 9월 27일 1교시

2021학 년 도

2학 기 [중 간]고 사

2 학 년
국 어
과목 코드: 01

선택형	26 문항	3점 × 4문항 = 12점
서답형	/	4점 × 22문항 = 88점
총 문항 수	26 문항	총 100점

※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카드에 표기하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학원은커녕 놀 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 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 낼 발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낔다 던져 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딱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그런데 그러고도 시간이 늘 남았다. 그때는 집 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 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거리가 그득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종천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날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었다.

(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 준 책

그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엑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였고 2권이 에드문도 데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권 중에서 고민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답했다. 그러곤 내친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혼자 소리 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중략)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 갔다. 세계 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의 나와 만난 후의 나는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면 그전까지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에서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다. 특히 시골에 가면 (A)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다니며 놀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다니느라 방학이 끝나면 온통 새까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논 것이다.

그런데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놀 곳 천지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산을 올라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작은 공책을 들고 가서 무언가를 쓰기도 했다. 소 풀을 먹이러 나가서도 소는 대충 묶어 놓고 냇가에 앉아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 주신 세계 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게 마련인데,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간 것 같다.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그 책들 덕분이었다.

-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 뒷면 계속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4점]

- ① 글쓴이는 휴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② 세계 동화 전집은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보며 적극적으로 책을 읽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백과사전을 통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을 키웠다.
- ⑤ 글쓴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요즘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2. 글쓴이가 세계 동화 전집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변화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3점]

	<보기>
㉠	골목길에서 딱지 치기
㉡	학교 운동장에서 공 차기
㉢	시인을 꿈꾸는 감성 만들기
㉣	사유의 세계, 상상력 넓히기
㉤	무덤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기기
㉥	시골에 가서 벌레나 모내기 잡기

	읽기 전	읽은 후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3. <보기>는 《사랑의 학교》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적절한 것은?[4점]

<보기>

나는 오늘 조금 늦게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서너 명의 아이들이 크로시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긴 자로 크로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아이도 있었고, 채소장사를 하는 크로시의 아픈 어머니를 흉내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크로시는 너무 화가나 그 아이에게 잉크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잉크병은 교실로 들어오시던 선생님의 앞가슴에 명중되었습니다.

“누구야?”

선생님은 매우 화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르로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로네, 넌 아니다. 별주지 않을 테니, 던진 사람이 일어나거라.”

크로시는 사실을 말했고, 선생님은 크로시를 괴롭힌 아이들을 꾸

짚었습니다.

“친구를 놀리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비겁한 행동은 없어, 어떻게 같은 반 친구끼리 놀릴 수 있지? 그건 부끄럽고 바보 같은 짓이야.”
“가르로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 ①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의지
- ② 친구와의 우정,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 ③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 ④ 부모님의 깊은 사랑,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 ⑤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4. 윗글의 ㉠에 들어갈 관용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닭 쫓던 개
- ② 독 안에 든 쥐
- ③ 용 못된 이무기
- ④ 고삐 풀린 망아지
- ⑤ 호랑이 모르는 하룻강아지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랐다.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를 조를 만큼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중략)

어머니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노벨상 문학 전집’이라고 ㉠책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찼다.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노벨 문학상 작품들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 주었다. 그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 갔다.

그런데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내가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 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음 장 계속

(나) 문학이 이끌어 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후에도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그 전집에 끼워 넣곤 했다. 그중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⑥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하여 ⑥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다. 이후 이십 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 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반 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A]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⑦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 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⑧개미집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별안간 ⑨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⑩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 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⑪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⑫가까스로 공포를 이겨 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중략)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자인 솔제니친은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당시의 나 역시 개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꽃혀 버린 학문, 사회 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수필이 생각났다. 그간 수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꺼안고 살았는데,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회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⑬이타주의다.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기가 손해 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사회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5.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4점]

- ①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를 영화적 구성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장면전환에 제한적이고 인물 없는 배경만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③ 형식에 관계없이, 작가의 체험·경험 또는 의견·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신의 주관적 감정, 즉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낸 이야기로 허구적 사건을 통해 삶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

6. 윗글의 글쓰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책을 사기 어려웠다.
- ②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시보다 소설을 많이 읽었다.
- ③ 훗날 동물 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기 위해 노벨 문학상 작품 전집을 읽었다.
- ④ 솔제니친의 수필을 읽고 품었던 수수께끼가 학문 연구를 하면서 풀리게 되었다.
- ⑤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7. [A]에서 개미들이 불길을 피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4점]

- ① 솔제니친의 지적 호기심을 키우기 위한 극적인 연출이다.
- ② 솔제니친의 이타주의를 자극하여 개미집을 구하려는 행동이다.
- ③ 모닥불에 자신들의 집을 던진 솔제니친에게 복수하려는 행동이다.
- ④ 스스로를 희생하여 모여 사는 집을 구하려는 개미의 이타주의적인 행동이다.
- ⑤ 옛 소련에서 반역죄로 추방당한 솔제니친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상징적 행동이다.

☞ 뒷면 계속

8. 옛 소련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 솔제니친
- ② ㉡: 소련
- ③ ㉢: 소련의 군중
- ④ ㉣: 군중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상황
- ⑤ ㉤: 소련의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러시아의 군중

9. ㉠~㉥의 사전적 정의로 **틀린** 것은?[4점]

- ① ㉠: 책을 매어 놓은 쪽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
- ② ㉡: 인접하여 위치한 다수의 점들 혹은 그러한 점들을 포함한 해역
- ③ ㉢: 나라와 거래를 배반함.
- ④ ㉣: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현상
- ⑤ ㉤: 타인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행복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

10. <보기>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가): 주제를 정하기가 막연한 경우 자신의 경험, 관심, 취미, 기술, 신념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브레인스토밍해 보면 도움이 된다.
- ② (나): 수집할 내용에 따라 자료 수집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 ③ (다): 핵심 정보를 선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표의 주제가 바뀔 수도 있다.
- ④ (라): 발표 준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완벽한 발표 계획 및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 ⑤ (마):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먼저 바꾸고 싶은 공간을 정해 보자.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학교에서 바꾸고 싶은 공간을 찾는 건 어때?

학생 2: 학교에는 우리가 편하게 쉬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어디를 바꾸면 좋을까?

학생 3: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대부분 복도로 나가잖아. 복도를 바꾸는 건 어때? 복도를 편하게 쉬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거야.

학생 4: 그런 복도는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 되겠지? 그리고 복도가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

학생 1: 그럼 ㉠'복도를 휴식·문화·놀이의 공간으로 만들기'를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로 정하고 발표를 준비해 보자!

학생 2: 좋아. 우선 우리가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자.

(나)

자료 수집 방법	수집한 자료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바라는 복도: '휴식·문화·놀이의 공간' 1.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 같은 곳 2. 폭신한 의자에 앉아 편히 쉴 수 있는 거실 같은 곳 3. 수업 결과물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같은 곳 4. 춤도 추고 악기도 연주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곳 5. 마음껏 뛰어놀아도 혼내는 사람이 없는 놀이터 같은 곳 6. 게임기로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 같은 곳
인터넷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나 회사에서 복도나 통로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여 주는 사진 2. 학생들이 복도에 전시된 시화를 감상하는 모습을 담은 산들중학교 영상 3. 복도를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희망중학교 춤 동아리의 공연 영상

☞ 다음 장 계속

(다)

핵심 정보 선정하기	우리 모두가 제안하는 새로운 복도 - 복도를 휴식·문화·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기
	1. 휴식 공간: 편히 쉴 수 있는 곳
	2. 문화 공간: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곳
	3. 학습 공간: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토의할 수 있는 곳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학생 1’은 발표 주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제시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대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 ⑤ ‘학생 1~4’는 모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보기>는 (나), (다)를 토대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보기>

학생 1: 복도를 ‘휴식·문화·놀이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우리 모두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보자.

학생 2: ㉠‘휴식 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설문 조사 결과 1, 2번과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 정보 1번을 함께 다루자.

학생 3: ㉡‘문화 공간’으로서의 복도를 제안할 때는 설문 조사로 수집한 정보 3, 4번과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 정보 2, 3번을 활용하자.

학생 4: ㉢‘놀이 공간’과 관련된 자료는 설문 조사로 수집한 정보 5, 6번이야. 이 내용대로면 놀이 공간은 놀기만 하는 곳이 될 것 같아 활용하기가 어려워. 우리 의도가 게임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잖아?

학생 1: 맞아, ㉣복도를 ‘학습 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어때?

학생 2: 그래, ㉤수집한 자료 중에 누구나 복도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가 담긴 도서가 있었으니 활용하면 될 거야.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와 관련하여 찾은 도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점]

- ① 자연 속에서 배우는 생태 학교
- ②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그린 학교
- ③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교실
- ④ 지역사회 주민을 초대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 ⑤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한 학교 공간 혁신 사례

[14~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도 방송국 웹 사이트에 들어가 예고편을 봤었다. 설렘과 어색함, 신기함과 민망함이 섞여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동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아! 나는 저거보다 훨씬 괜찮게 생겼는데…….’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실제보다 못해 억울하고 섭섭한 거였다. (중략) 연예인이 되려면 자기를 보통 좋아하지 않고선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 문밖에 선 어머니가 “근데” 하고 덧붙였다.

“왜 그렇게 놀라?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었던 거 아냐?”

나는 부루통히 **공얼댔다**.

“내가 뭐 아빤 줄 아나…….” (중략)

나는 인터넷 뉴스 창을 닫고,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영상을 한 번 더 돌려 봤다.

“실제 나이 17세. 신체 나이 80세. 누구보다 빨리 자라, 누구보다 아픈 아이 아름.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름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는데…….”

다시 봐도 낯선 영상이었다. 17. 80. 합병증. 웃음……. 하나하나 짚어 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알뜰하게 배열된 걸 보니 사실이 사실 같지 않았다.

㉡‘괜히 하자고 한 걸까?’

(나) 방송은 정확하게 여섯 시에 시작됐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멀뚱히 티브이를 바라봤다. 영화 관람이라도 하는 양 숨을 죽인 채였다. 화면 위로 광고 몇 개가 지나갔다.

㉢“엄마, 쥐포 없어?”

실없는 말에, 바로 핀잔이 돌아왔다.

“축구 보냐?”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한쪽 팔에 턱을 괴고 눕는 대신 내무실의 이등병처럼 정좌로 앉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오도카니 앉아 두 눈을

☞ 뒷면 계속

끔벅였다. 잠시 후, “이웃에게 희망을”이란 글자가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브라운관 위로 떠올랐다. ‘아무렴, 인생은 드라마지, 그렇고말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의 웅장한 협주곡이었다. 프로그램 제목 뒤로, 하트 모양의 연꽃빛 새싹이 둥글게 돌아났다. 이윽고 **낭창하게** 들려오는 성우의 목소리.

“이웃에게 희망을!”

순간 ㉠나는 “으음” 하고 낮게 신음했지만, 재빨리 스스로를 타일렸다.

‘뭘 바란 거야, 바보야. 불평하지 마.’

(다) “오랫동안 치료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게…… 음, 혼자라는 생각요.”

“그래?”

“아니요, 부모님이 저를 외롭게 두셨다는 뜻이 아니고, 아플 때는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요. 철저하게 혼자라는. 고통은 사랑만큼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더욱이 그게 육체적 고통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을 원망한 적은 없니?”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그럼.”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뭘?”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건 정말 어려운 일 같거든요.”

“…….”

“그래서 아직 기도를 못 했어요. 이해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뒤 나는 **겸연쩍은** 듯 말을 보탰다.

“하느님은 감기도 안 걸리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성우의 목소리.

“조로증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질문은 사연 사이사이, 드문드문, 적절하게 안배됐다. 문맥과 리듬에 신경 쓴 승찬 아저씨의 노력이 엿보이는 편집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가장 부러울 때는 언제야?”**

“ 많죠! 정말 많은데…… 음, 가장 최근에는 티브이에서 무슨 가요

프로그램을 봤을 때예요.” (중략)

“그 애들, 앞으로도 그러고 살겠죠? 거절당하고 실망하고, 수치를 느끼고.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을 해 보고.”

“아마 그렇겠지?”

“그 느낌이 정말 궁금했어요. 어, 그러니까……저는……

뭔가 실패할 기회조차 없었거든요.”

“…….”

㉣**“실패해 보고 싶었어요. 실망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크게 울어 보고 싶었어요.”**

(라) 모니터 상단에는 방송 내내 조그맣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 번호가 붙박여 있었다. 기부는 전화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일반 후원금도 모금하고 있으며, 신용 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방송은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계를 보며 ㉤**조금 열 빠진 표정을 지었다.** 자기들한테 그렇게 많은 말을 시켜 놓고, 본방송에서 겨우 몇 마디 인용해 놓은 게 어리둥절한 눈치였다. 심지어는 조금 섭섭해하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초반에 건너뛴 부분이 다시 재생되자 두 사람은 다시 방송에 집중했다. 녹화 당시 부모님도 못 봤던 장면이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요, 아름인?”

“저는…….”

한참 뜬을 들이다 나는 수줍게 입을 열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자식이 되고 싶어요.”**

“…… 좀 더 설명해 줄래?”

(마) 끝으로 방송사 로고가 보일 때까지 (A)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셋 다 ㉦**처음 겪는 일**이라, 정신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그런데 때마침 현관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난데없고 **성마른** 소리였다. 우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다. 문밖에선 여전히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경계하듯 소리쳤다.

“누구세요?”

“날세.”

“누구요?”

“나야. 옆집 장 씨.”

아버지는 우릴 보고 어깨를 으쓱한 뒤, 현관문을 딸깍 열었다. 장씨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거실로 들어서며 숨을 헐떡였다. 그러고는 충격을 받은 듯한 태도로 내게 물었다.

“아름아, 방송 봤니?” (중략)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러자 장 씨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안 나와…….”

-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 다음 장 계속

14.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현대 소설이자 장편 소설임.
 - ② 무거운 소재를 생기발랄한 문장으로 표현함.
 - ③ 사춘기 청소년들 사이의 갈등과 방향을 그려냄.
 - ④ 가족의 의미와 삶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함.
 - ⑤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음.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 외모에 관심이 많은 소년의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남.
 - ② ㉡: 아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한 질문임.
 - ③ ㉢: 또래 아이들처럼 일상적으로 겪는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미임.
 - ④ ㉣: 자신들의 촬영 영상이 편집이 많이 되었기 때문임.
 - ⑤ ㉤: 방송에 자신들의 사연이 소개된 일
16. ㉠~㉤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 자신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부담됨.
 - ② ㉡: 방송 출연이 쑥스럽고 긴장됨.
 - ③ ㉢: 프로그램의 제목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같아 만족함.
 - ④ ㉣: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느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함.
 - ⑤ ㉤: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함.
17. 밑줄 친 어휘의 풀이로 **틀린** 것은?[4점]
- ① 공얼땀다: 혼잣소리로 불만스럽게 자꾸 말했다
 - ② 낭창하게: 누구보다 큰 소리로
 - ③ 겸연쩍은: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한
 - ④ 막바지: 마지막 단계
 - ⑤ 성마른: 참을성이 없고 성질이 조급한
18. (A)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방송 이후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돼서
 - ② 기대한 것보다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서
 - ③ 자신들의 생각과 방송에 나온 것이 차이가 나서
 - ④ 방송 출연 후 정신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 ⑤ 아람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나서

1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점]
- ① 아람이는 평범한 삶을 부러워하고 있다.
 - ② 아람이의 가족은 아람이를 외롭게 둔 적이 많았다.
 - ③ 아람이의 아빠는 방송 전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 ④ 장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
 - ⑤ 아람이는 자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실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이 크다.
20. <보기>는 소설을 영화로 재구성할 때의 감상법을 비교한 것이다. (a)~(c)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3점]

<보기>

소설을 감상할 때에는 글 이외에는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읽는 이가 (a)을/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측하거나 자신의 배경지식과 (b)을/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시청각적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의 연기, 장면, 배경 음악, 효과음 등 주어진 여러 (c)들을 종합하며 감상해야 한다.

	(a)	(b)	(c)
①	상상력	문맥	정보
②	상상력	정보	문맥
③	정보	상상력	문맥
④	문맥	상상력	정보
⑤	문맥	정보	상상력

21. 이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4점]
- 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이 주변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③ 소설 속 인물이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④ 소설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⑤ 작가가 관찰자로서 인물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뒷면 계속

22. <보기>에서 창조적 재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4점]

————— <보기> —————

ㄱ. 시는 음악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
 ㄴ. 글의 내용과 형식을 바로 잡는 활동이다.
 ㄷ. 재구성 과정에서 표현과 관점은 변할 수 없다.
 ㄹ.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 고쳐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점]

- ① 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주제를 바꾼다.
 ②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③ 글을 쓰는 내내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방법도 달라진다.
 ④ 이 과정을 통해 중심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⑤ 글 전체에서 시작해서 문단, 문장, 단어 순서로 고쳐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24.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가 **아닌** 것은?[4점]

- ① 삭제 ② 추가 ③ 대치
 ④ 재구성 ⑤ 나열

25. 고쳐쓰기 단계 중 문단 수준에서 점검할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3점]

————— <보기> —————

ㄱ. 글의 제목이 주제와 연관되는가?
 ㄴ. 사용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가?
 ㄷ.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는가?
 ㄹ. 각 문장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 교정부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4점]

- ① ∨ : 띄어 쓸 때
 ② ∼ : 줄을 바꿀 때
 ③ ˘ : 글자를 뺄 때
 ④ ○ : 글자를 넣을 때
 ⑤ ↓ : 앞과 뒤 순서를 바꿀 때

끝.